

◎ 東亞大學校는 社會科學 分野의 理論과 實際에 대한 研究를 強化하고자 最近 同大學校 附設 社會科學研究所를 開所하였다. 이는 지난 79 年과 81 年에 각각 개설되어 研究활동중이었던 社會開發研究所와 比較公法研究所를 통합한 것으로서, 同研究所내에는 운영위원회, 법률행정 연구실, 정치·경제연구실 등의 기구가 설치되어 있다. 한편 同研究所 傘下에 觀光開發研究室과 미래윤리기 研究室을 今年內로 新設할 예정이다.

◎ 韓國學術振興財團에서는 제반 學術活動을 효율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81年度 學術 研究助成費에 의한 研究報告卷의 內容을 要約한 論文抄錄集을 發간하였다. 82年 5月부터 연구자 本인이 작성한 論文抄錄을 분류·정리한 이 抄錄集에는 780편의 論文抄錄이 수록되어 있으며, DDC 圖表分類表에 의해 學問 分野別로 분류되어 있다. 또한 附錄에는 論文題目的 가나다順에 따라 배열한 索引도 실려 있다.

◎ 駐韓 獨逸文化院(Goethe Institute) 초청으로 지난 1月 31日부터 2月 5日동안 우리나라를 방문한 西獨 Tübingen 大學教授 Ulrich Herrmann 博士는 체류 중 세 차례에 걸친 研究發表 회를 가졌다.

먼저 2月 1日부터 3日까지 延世大에서 열린 Workshop 에서 Herrmann 教授는 독일의 教育 과학의 발생사, 1960~70년대의 教育개혁과 그 결과, 및 教育과학의 성격이라는 세 주제로 참가자들과 토론회를 가졌다.

한편 본 協會에서도 지난 3日 Herrmann 教授를 초빙하여 “西獨大學의 理念과 現實”이라는 주제로 學術發表會를 개최하였다.

이어서 韓國教育學會 教育哲學研究會에서도 Herrmann 教授와 國內學者 多數가 참석하여 “독일의 教育학과 한국교육”이라는 주제로 지난 4

일 주한 독일문화원에서 학술발표회를 가졌다. 이 발표회에서 Herrmann 教授는 “독일의 현대 教育철학의 동향”이라는 제목으로 주제강연을 하였고, 이밖에 “Spranger 의 教育철학과 한국 教育”에 대한 高麗大 金丁煥教授의 發表를 비롯하여 네분의 發表가 있었다.

◎ 1982 年에 開校한 江原道 春川市 所在 翰林大學은 비록 新設大學이지만 財團의 積極的인 支援과 財團理事長 尹 德善博士와 金 鐸一學長의 透徹한 教育 熱로 教育與件의 整備에 迫車를 가하고 있어 자못 그 將來가 기대된다고 한다. 教授確保面에서도 高 柄翹(史學, 前 서울大 總長), 高 範瑞(哲學, 前 崇田大 總長), 鄭 範模(教育學, 前 忠北大 總長), 玄 勝鍾(法學, 前 成均館大 總長), 崔 永禧(史學, 前 國史編纂委員會 委員長) 博士 등 學界의 重鎮人士들을 教授로 任用함으로써 大學街의 색다른 話題가 되고 있다.

◎ 大韓國際法學會는 최근 열린 총회에서 새 會長으로 李允榮 高麗大교수를 선출했다. 부회장은 金文遠교수(慶北大), 李丙朝교수(中央大)가, 총무이사에는 李仲範교수(檀國大), 연구이사에는 柳炳華교수(高麗大), 출판이사에는 金明基교수(明知大)가 각각 選出되었다.

◎ 전문대학이상 국내 240개 대학의 현황자료를 집대성한 “大學年鑑”이 出版社 에드 영(Ad Young)에 의해 최근에 發간됐다. 모두 4편으로 구성된 이 연감은 대학의 연혁으로부터 교수·재학생분포, 예산 등 전반에 관한 최근 통계자료와 이의 개괄적 분석을 담았다.

또 「대학의 이념과 기능」 「대학교육 발전사」 「서구의 대학입시제도」 등 연구논문들 수록하였고 附 록으로 1만 3천명의 대학교수인명록을 실었다.